

‘폐농약병지류’ 수거사업 확대 시행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리후렛 20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 단체 및 농협 등에 배포하였으며 한국작물보호협회도 회원사 및 농약판매상에 배포하여 홍보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업무부

지난 1989년부터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농약빈병 수거사업을 펼쳐왔던 환경부가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폐농약병지류 수거사업을 2009년도에는 농약빈병 수거사업과 병행하여 본격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거·처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폐농약병지류 수거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 환경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의 후원을 받아 대대적인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금년도 리후렛의 수량을 20만부로 대폭 늘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 농업인 등에 배포하였으며 한국작물보호협회도 리후렛 6만부를 회원사와 농약판매상에게 배포하여 대농업인 교육 및 농약구매시 계도토록 요청하는 등 홍보 사업에 적극 동참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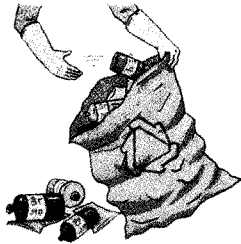
농약병지류 뿐만 아니라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농약빈병 및 폐비닐의 수거에 대한 수거안내는 가까운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용기별 수거비 지급기준을 보면 △병지류 1,380원/kg △유리병 150원/kg △플라스틱병 800원/kg이며 병류는 재활용업체에, 병지류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는 폐농약병지류 수거사업이 더욱 확대된다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Y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 연락처

서울·인천·경기지역 031-8012-0870, 강원지역 033-240-9520/3, 충북지역 043-219-6420/2, 대전·충남지역 041-860-7700/5, 전북지역 063-530-0800/5, 광주·전남지역 061-370-3510/4, 대구·경북지역 053-580-7510/7, 부산·경남지역 055-320-0310/3, 제주지역 064-722-6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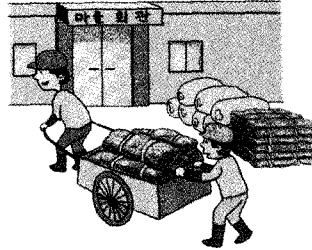
1 발생



농가·마을

영농 후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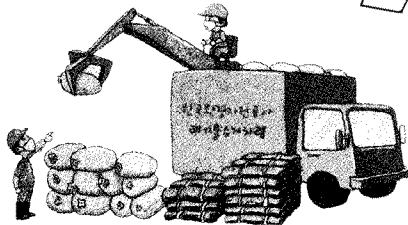
2 분리배출



마을별 공동집하장

- 영농폐비닐 : 재질별(하우수, 멀칭로덴, 하이텐) 색상별(흰색, 검정색)로 구분하여 배출
- 농약용기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지, 종이)로 구분하여 배출

3 수거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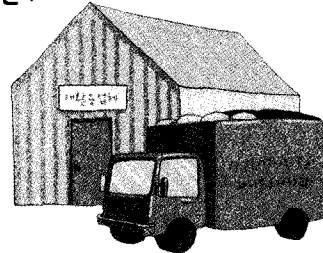
수거요청 및 지역별

수거 일정에 따라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수거



4 처리



재활용업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 업체에 공급

수거보상금 지급안내

영농폐비닐 : 수거보상금 지급

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수거하고,
수거실적 지자체에 제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사에
수거된 수량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평균 100원/kg)

월별 또는 분기별

공사 → 지자체

계좌 입금

지자체 → 농민

농약용기 : 수거비 지급

공사에 수거된 수량에 따라 지급

계좌 입금

유리병 : 150원/kg

플라스틱병 : 800원/kg

농약봉지류 : 1,380원/kg

공사 → 농민

농민의 실천사항 영농폐기물은 이물질 제거하고, 농약용기는 농약을 다 쓴 후 배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